

열 살, 손자병법을 만나다

조경희 지음 | 임광희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펴냄

● 책 소개

체육관의 노른자를 차지하기 위해
1반 회장 보람이와 전쟁을 시작했다!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폼나게 보란 듯이 이기고 싶은 3반 회장 옹휘의
《손자병법》 실전편!



열 살, 손자병법을 만나다

조경희 지음 | 임광희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펴냄

재미있는 동화를 읽으며,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고전 속 문장들을 함께 배운다

귀찮은 걸 싫어하는 웅휘는 회장 따윈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얼떨결에 '무투표 당선 회장'이 된다.
회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에는 중간 놀이 시간이 생기고,
반 아이들은 체육관 중앙의 인기 있는 구역,
일명 '노른자'를 1반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한다.
회장인 웅휘가 나서야 하는 상황!
웅휘는 《손자병법》을 달달 외우는 친구 검재에게
《손자병법》에 담긴 기막힌 전술을 하나하나 배우며 1반과의 전쟁을 시작한다.
하지만 1반 회장인 보람이도 만만치 않다.
속임수도 쓰고, 눈치 싸움도 벌이고,
2반, 3반과 동맹 작전도 불사하고, 급기야 미남계까지 펼치기도 하는데...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이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이겨 내고 과연 노른자에 평화가 찾아올지 궁금할 것이다.
흥미진진한 전개와 재미난 소재로 이야기의 몰입감을 높이고,
왜 세계의 리더들이 《손자병법》을 필독하는지도 보여 주는
〈나의 첫 인문고전〉 손자병법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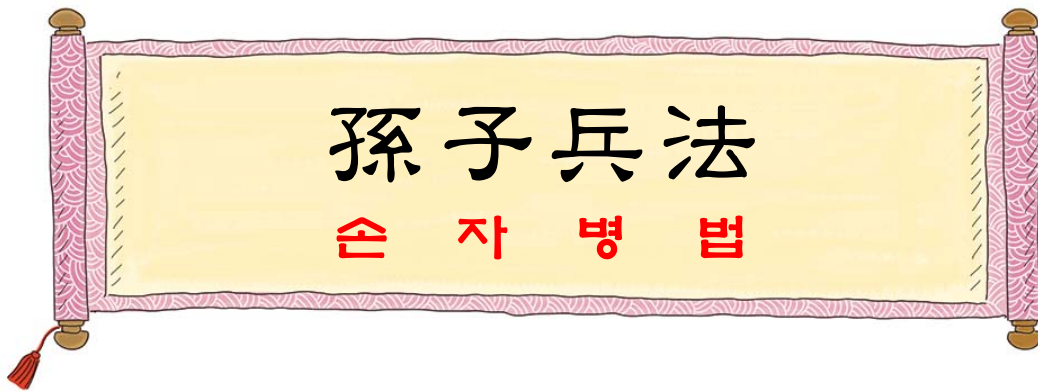


열 살, 손자병법을 만나다

조경희 지음 | 임광희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펴냄

● 동화를 읽기 전에 책 제목을 보며 생각해 보기

《열 살, 손자병법을 만나다》을 읽기 전에 《손자병법》이 어떤 책인지 조사하여 간단히 써 보세요.



① 중국 고전 《손자병법》은 어느 시대에 누가 편찬한 책인가요?

② 《손자병법》이라는 제목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어떤 뜻일까요?

③ 《손자병법》에 들어 있는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인 병법을 찾아 써 보세요.

열 살, 손자병법을 만나다

조경희 지음 | 임광희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펴냄

● 동화를 읽고 함께 생각해 보기

《열 살, 손자병법을 만나다》에는 주인공 웅휘와 1반 회장 보람이, 검재 등 다양한 친구들이 등장해요. 이야기를 읽고 등장인물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생각나는 대로 써 보세요.

차웅휘	
강보람	
손검재	
이동민	



열 살, 손자병법을 만나다

조경희 지음 | 임광희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펴냄

● 동화를 읽고 함께 생각해 보기

《열 살, 손자병법을 만나다》를 읽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손자병법》에서 인용한 문장들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써 보세요.

손자병법의 가르침	나의 깨달음
임금은 화가 난다고 해도 함부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24쪽	
가장 최고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28쪽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36쪽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잘 따져 보고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39쪽	
전쟁의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일단 시작했으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한다. -49쪽	

열 살, 손자병법을 만나다

조경희 지음 | 임광희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펴냄

● 가치 수직선 토론하기

《열 살, 손자병법을 만나다》에서 옹휘와 3반 아이들은 체육관 노른자 땅을 차지하기 위해 《손자병법》의 내용을 실전에 적용하며 고군분투해요. 어떤 병법은 잘 맞아떨어지지만 어떤 병법은 어긋나기도 했는데, 《손자병법》과 같은 옛사람의 좋은 글귀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도 깊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고전의 가치에 대해 아래 가치 수직선에 나의 의견을 표시하고, 그와 관련하여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론해 보세요.

“고전은 지금 시대에도 좋은 가르침이 된다.”에 대한 나의 의견



가치 수직선에 표시한 나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전의 가치에 대하여 친구들과 토론이 즐거웠나요? 토론을 통해 정리된 나의 생각을 아래에 써 보세요. 나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

[illegible]

열 살, 손자병법을 만나다

조경희 지음 | 임광희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펴냄

● 동화를 읽고 상상해 보기

《열 살, 손자병법을 만나다》에서 체육관 노른자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이 흥미진진하지요? 권모술수, 속임수, 미남계, 다양한 전략이 나왔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전략을 썼을지 생각해 보고 더 멋진 아이디어를 써 보세요.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다.”라고 해요. 꼭 싸우지 않고도 노른자를 사이좋게 돌아가며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쓰고, 그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
